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YahooFinance: ADP, 10월 미국 고용 시장 '미약한 회복' 조짐 보여
- Reuters: 트럼프, 파월 의장 비난하며 몇 달 내 교체 검토

[미국 금융]

- WSJ: 월가, 시장 분위기 좋다

[고용시장]

- Bloomberg: UPS,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익 예상치 상회
- WSJ: 아마존, 일자리 14,000개 감축 예고

[글로벌 무역]

- Reuters: 중국-ASEAN, 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

[오일]

- CNNBusiness: 트럼프의 러시아 석유 제재, 얼마나 큰 타격 입히나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CG: 모든 직원들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 BCG: AI 에이전트, 어떻게 소비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 McKinsey&Company: 마케팅도 이제는 개인화되어야한다

[미국 경제]

YahooFinance: US job market shows signs of 'tepid recovery' in October, ADP says
ADP, 10월 미국 고용 시장 '미약한 회복' 조짐 보여

- 민간 급여 처리 기관 ADP가 미국 노동 시장이 10월에 회복 조짐을 보이며 주당 평균 고용 증가량이 14,25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 이러한 고용 증가는 미국 경제가 최근의 일자리 감소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 민간 고용 통계에 따르면 미국 민간 고용주들은 9월에 3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 한편, 현재 미국 정부 섯다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ADP의 데이터는 투자자들에게 미국 노동 시장 현황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YahooFinance 기사

Reuters: Trump slams Fed chair, eyes replacement in a few months
트럼프, 파월 의장 비난하며 몇 달 내 교체 검토

-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이 많다고 말하며 현 연준 의장 파월을 비난했다.

-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 중 도쿄에서 열린 만찬에서 재계 지도자들에게 “연준 의장은 무능하고 나쁘지만 몇 달 안에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그는 현 미국 재무장관 Scott Bessent를 연준 의장 자리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으나, Bessent는 재무장관 자리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 월요일에 베센트는 연준 의장 최종 후보는 5명이라고 전한 바 있다.
- 여기에는 백악관 경제 고문 Kevin Hassett, 전 연준 의장 Kevin Warsh, 현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 연준 감독 부의장 Michelle Bowman, 그리고 BlackRock 임원 Rick Rieder이 포함된다.

Reuters 기사

[미국 금융]

WSJ: The Good Vibes Are Back on Wall Street

월가, 시장 분위기 좋다

- 다우존스, S&P500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등 많은 글로벌 주식 시장이 월요일에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약 337포인트(0.7%) 상승했고, S&P500 지수는 1.2% 상승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1.9% 상승하며 5월 이후 처음으로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 미중 무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며, 10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다.

U.S. stock indexes, past three days



Source: FactSet

As of Oct. 27, 4 p.m. ET

WSJ 기사

[고용 시장]

Bloomberg: UPS Jumps After Sweeping Job Cuts Push Profit Above Estimates

UPS,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익 예상치 상회

- UPS가 올해 34,000여 개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UPS는 월가의 이익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 또한, 이들은 비용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임대 및 소유 건물 93곳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기도 하다.
- UPS를 포함해 택배 업계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따라 수요 부진, 높은 비용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 UPS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인력 감축 등의 비용 절감 계획으로 약 22억 달러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전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총 35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WSJ: Amazon Lays Off 14,000 Corporate Workers

아마존, 일자리 14,000개 감축 예고

- 아마존이 화요일에 14,000명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대 30,0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고 조치 중 첫 번째 발표이다.
- 아마존은 이번 감원을 통해 조직을 축소하고 현금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번 감원은 전체 인력의 약 10%에 달한다.
- 이러한 조치는 인사팀,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또한, 이번 감원은 아마존이 약 2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없앤 2022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감원이 될 것이다.
- 이들은 생성형 AI와 에이전트를 도입하면서 “아마존 자체의 운영 방식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WSJ 기사

[글로벌 무역]

Reuters: China and ASEAN, hit by US tariffs, sign upgraded free trade pact

중국- ASEAN, 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

-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이 업그레이드 된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 ASEAN 통계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 작년 양국의 무역 규모는 7,710억 달러에 달했다.
- 이는 중국이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는 막대한 수입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싱가포르 총리 Lawrence Wong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역 장벽이 더욱 낮아지고 공급망 연결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애널리스트들은 이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미국의 관세 여파를 줄이기 위한 잠재적인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는데,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다른 국가의 무역 협정보다 효력이 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일]

CNNBusiness: How hard will Trump's 'tremendous' Russian oil sanctions hit Moscow? China and India may decide

트럼프의 러시아 석유 제재, 얼마나 큰 타격 주나

-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제재를 가하자, 인도와 중국에 즉각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
- 이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위협에 크게 저항해 온 것이다.
- 애널리스트들은 이에 관해 11월 마감일이 되면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하루 140만 ~ 260만 배럴의 원유가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으며, 중국과 인도는 하루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엄청난 할인율로 수입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번 제재로 인해 인도가 수입량을 줄이면서 남게 되는 러시아산 원유를 누가 흡수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CNN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CG: How Every Employee Can Become an Innovator

모든 직원들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Generative AI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지만, 혁신은 도구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 GenAI 도구는 기업 구성원들이 개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를 검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지속이 가능하다.
- 또한, 기업은 모든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학습하도록 지원해야한다. 이는, 빠르고 단순하며, 팀 단위의 테스트 프로세스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여행 예약 플랫폼 Booking.com은 모든 팀이 메인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기능이나 사이트 디자인 변경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
- 또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내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 커뮤니티 플랫폼 WeSolve는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플랫폼 실험이나 아이디어 개발에 참여하고, 전문 코치가 실험을 도우며 그 아이디어에 관해 더욱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업들은 모든 실험의 결과와 코드를 중앙 시스템에 저장해야하며, 이를 통해 팀의 성공 사례가 회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
- Booking.com은 수행된 실험과 그 결과를 모든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 전체에서 이러한 성공적인 실험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 특히, NASA에는 이러한 실험을 전담하여 분석하는 “지식 큐레이터” 역할을 두고 정기적으로 각 부서의 아이디어 실험 결과를 공유한다.

- 직원 중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각 직원의 역할 강조하는 문화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 GenAI 도구는 혁신의 촉매일 뿐이며, 이와 동시에 시스템과 문화가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기업 전체의 혁신이 가능하다.

BCG 기사

BCG: How AI Agents Are Transforming Consumer Goods AI 에이전트, 어떻게 소비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 인공지능은 소비재 산업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
- 지난 한 해 동안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의 AI 에이전트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의 최대 약 20%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BCG의 조사에 따르면, AI는 기업의 가치를 최대 8% 더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 AI 도입을 주저하는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놓치는 것 뿐만 아니라, AI 우선 전략을 채택한 기업들보다 뒤처질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다.
- 한 글로벌 뷰티 브랜드는 BCG와 협력해 고도로 개인화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에이전트형 AI를 개발했는데, 이 에이전트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인사이트를 수집한다.
-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브랜드가 갖고 있는 750개 이상의 제품을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 이처럼 AI는 단순히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수준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다.
- 선도 기업들은 고객 중심의 AI 기반 실행 방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기능을 혁신하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 이들은 약 20%의 예산을 AI 프로젝트에 배정하고, 각 부서가 AI 솔루션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 속도는 최대 5배, 성과 분석은 60% 빨라졌으며, 기업들은 더욱 민첩하게 혁신을 이루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BCG 기사

McKinsey&Company: Unlocking the next frontier of personalized marketing 마케팅도 이제는 개인화되어야한다

- 최근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마케팅 개인화를 현실에서 이뤄내고 있다.
- 소비자에게 매력적일만한 혜택과 맞춤형 공감 메시지를 제공하는 등 오늘날의 소비자들 또한 이러한 개인화된 경험을 더욱 원하고 있다.
- AI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를 정교하게 세분화하고, 타깃형 프로모션(Targeted Promotions)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
- 기존의 할인을 적용과 같은 프로모션 방식은 점점 효과가 줄어들고 있으며, 타깃형 프로모션을 통해 기업은 매출이 1~2% 증가하고 마진 또한 1~3% 향상될 수 있다.
- 이러한 타깃형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차별화를 이루며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 또한, 타깃형 프로모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대규모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할 수 있다.
- 기존에는 규모가 작은 고객층만을 위한 개인화된 콘텐츠 제작이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소비자 그룹에 맞게 콘텐츠를 따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 McKinsey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소개했던 마케팅 기술 ‘4D 프레임워크(Data, Decisioning, Design, Distribution)’에 ‘Measurement’라는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했다.
- Data(데이터):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고객의 구매 패턴과 선호도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 Decisioning(의사결정):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어떤 프로모션과 콘텐츠가 어떤 시점에 가장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Design(설계): 이 단계에서는 생성형 AI가 광고 카피나 이미지 등 정교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Distribution(배포): 고객이 브랜드 웹사이트 혹은 채널에 방문할 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 Measurement(측정): 이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측정해야 한다. 마케팅 개인화 전략을 통한 ROI(Return-of-Investment)를 증명하고, 성과 지표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McKinsey&Company 기사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